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9 ● 9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 독특한 탐사여행, 미래가 더 기대되는 탐사여행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지난 7월 17일을 기점으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100회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 2월 말에 첫 번째 탐사여행을 출발했으니 약 8년 반 만에 100회를 넘어선 것입니다. 100회에 들어서며 지난 탐사여행을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탐사여행을 마음껏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참가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탐사여행이 복음전파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그동안 탐사여행을 인도하면서 참가자들이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기초하며, 세계관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탐사여행은 하나의 성서 변증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독특한 강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스에서 수일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문제점과 성경적 역사가 사실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들을 때 “성경에 껴어 맞춘다”, “창조가 사실이라면 왜 교과서에 아직도 진화론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만 알았으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겠다” 등의 생각을 갖고 자리를 뜨기도 하지만, 탐사여행은 일단 버스에 탑승한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성경과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껏 물어보며 강사나 참가자들이 훨씬 여유를 갖고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와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경유지에서 그리고 숙소에서의 정리강연도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성입니다. 버스 안에서 과학 비디오의 시청은 진화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창조과학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이미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경유지 강연을 통한 지질학적 이해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성경적 설명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울러 저녁식사 후에 정리강연은 하루의 일정을 복습하며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지난 탐사여행에 참석했던 목사님께서 “길게 설명해야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정리강연 때 단 수십 분내에 가능한 것은 하루 동안 버스와 경유지에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것은 버스와 경유지 설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한편 정리강연이 이에 대한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장점들을 더 들 수 있겠지만 위에 소개된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 탐사여행을 소중히 여기시고 운행하셔서 이들 강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번째라는 숫자상의 과거기록을 넘어 창조과학선교회가 탐사여행을 향해 가는 기대는 “앞으로”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만큼이나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고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도자에 의존적인 부분을 탈피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역자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WEMA 목사님 탐사여행에 최우성 선교사가 함께 하고, 7월 말에는 단독으로

인도하신 것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탐사여행을 요청해 올 것을 대비해서 탐사여행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2세 영어권을 위한 탐사여행도 절실하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몇 차례 2세들을 위한 탐사여행이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통역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영어로 직접 전달할 사역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바를 돌아 볼지라도 탐사여행에 대한 바램과 기대를 모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탐사여행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기도하되 그분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단적인 예가 바로 “일본인 탐사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품입니다. 탐사여행이 직접적으로 선교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탐사여행에 기대하는 우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아낌없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교회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 AFTER EDEN

by Dan Liet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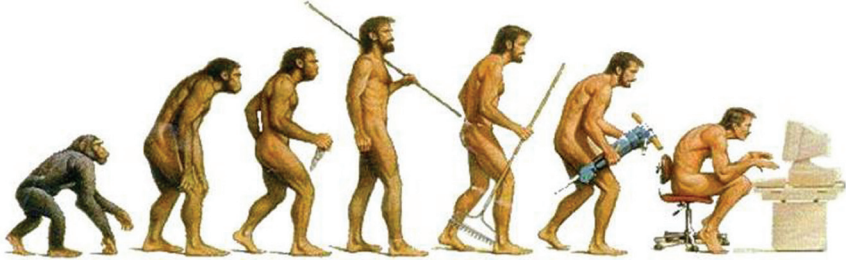
143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0

#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수**년 전 어느 추운 겨울 출근 시간에 워싱턴 DC 근교의 비행장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얼어붙은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아비규환 가운데 강 뚝에 서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사건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주던 여승무원이 점점 힘을 잃고 얼음물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었다. 이때 강 뚝에 서있던 무리 가운데서 갑자기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다. “누가 좀 뛰어 들어가!”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침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강속으로 몸을 날렸다. 여승무원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린 이 청년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아 공로훈장과 치하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필자를 아연 실색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 기사를 취재한 주간지 기자의 대략 다음과 같은 주석이었다. 직립하는 유인원으로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 사냥을 하며 구석기와 신석기 등의 원시 문화를 거쳐 적자생존 및 자연선택의 진화과정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된 인간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두 사람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는 내용이었다.

악취 나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류학만큼 시종 진화 일색인 학문은 없다. 지난 백년동안 영국의 리-키 집안이나 미국의 도널드 칼 요한슨 같은 소위 세계적이라고 하는 인류 학자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삶 전체를 걸어 놓고 발굴한 유인원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다 모아도 당구대 하나 위에 진열할 정도도 되지 못한다고 한다. 사실 모든 인류 학자들이 인정하는 중간 화석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잔트로푸스등은 모두가 오랑우탄이거나 멸종된 원숭이로 판명되었다. 필트다운인, 자바인, 네브라스카인은 원숭이와 사람의 뼈, 심지어는 멸종되었다고 그들이 선언했던 돼지 이빨로 꿰어 맞춘 조작품들이다. 그러나 네안델타르인이나 크로마뇽인은 사람의 화석이라는 것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고인류학에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땅에서 두개골 여섯 개를 캐어 냈을 때 어느 두개골에도 연령이 명시되어서 발굴되지는 않는다. 연령은 지질연대학자가 결정한





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인류학자가 두개골을 지질연대학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두개골의 연령을 미리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K-Ar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은 반감기가 15 억년 이상이나 됨으로 몇 백만 년 정도의 화석은 연대측정이 아주 부정확 하고 오차가 엄청 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진화론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령은 흔히 쓰는 안면 각도나 두개골 용량으로 아니면 소위 화석 발견자의 주장으로 미리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연령을 결정한 두개골 화석을 왜 또 지질연대학자들에게 보여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독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자기들의 발표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데 내용을 알게 되면 신빙성을 높

이기는 고사하고 더 회의적인 결과가 됨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싶다. 또 지적할 사실은 안면 각도로 연령을 결정 할 때는 각 두개골 화석이 발굴된 지층은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지층별로 나열하면 안면각도가 맞지 않고 안면 각도 데로 나열하면 두개골 용량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와 지질연대학자는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화음을 미리 맞추어서 내는 소리임으로 결국 어느 한 방법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학 교과서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 등등은 인간진화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좀처럼 되지않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라는 것이다. 리처드 리-키, 메어리 리-키, 미-브 리-키 세 사람 다 이구동성으로 인류진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인하였다. 여기에 관해서 1994년 3월 14일 짜타임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한 세기가 넘도록 땅을 팠으나 화석은 미칠 지경으로 희귀하다. 증거가 이렇게 희귀하기 때문에 한 점의 화석도 전체에 혼돈을 야기시킨다. 모든 중요한 발견은 그때마다 종전의 이론에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새로운 이론과 열띤 논쟁이 따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진화가 중력의 법칙처럼 진화론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의심하는 자가 없다.”

아이디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 있다. 나쁜 아이디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허망한 아이디어가 수 많은 사람을 헤어나지 못하는 지성의 도산을 초래했다. 이것을 의식할 때마다 매순간 새로운 각오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고대하는 삶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2절)



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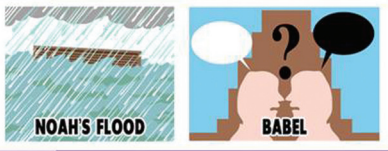
창조과학  
선교회 회장,  
의사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12



성경 역사



땅의 일들

© 2006 Answers in Genesis

## 왜 창조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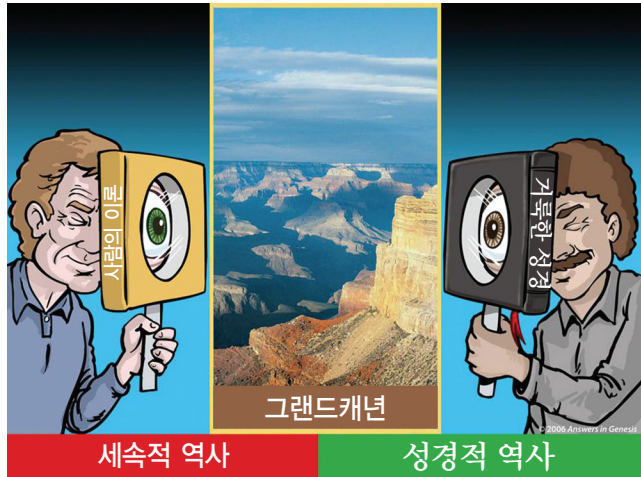
**과**학은 완전할 수 없다. 달리 말해서 시험적(tentative)이란 말이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알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과학을 전혀 신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과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혹은 안 계신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인지 믿음 좋은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에서 물질세계에 대한 지식을 대수롭지 않게 혹은 일 부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직 과학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자기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과학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먼저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즉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전도도 굳 이 사람을 통해 성경의 사실을 전달하는 미련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성경이 존재하기 전 성경 속의 인물들도 모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 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도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은 맨 처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쓰고 있다. 바른 믿음은 아무 증거가 없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시

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증거에서 시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물리적인 사실(Physical Reality)에서 성경 얘기가 시작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창조 사역, 아담과 땅의 저주, 노아홍수 심판, 바벨의 혼돈,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다. 이사야 5:12은 “그들이 ...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꾸중하고 계신다. 로마서 1:20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기록 되어 있다. 또 이사야 40:26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물질세계에 있는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들이다. 이유는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다. 지금 우리에게 볼 수 없고, 증거가 없어도 성경에 계시 된 하나님과 그 분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과 사실 일들을 사실로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알라고 하신다. 따라서 아무 증거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믿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 하지 않다. 자기중심적인 교만일 수 있다. 성경적인 믿음은 얼마간의 증거에 근거하여, 데



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증거가 참인지 아닌지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지 사실로 여기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하찮게 여겨지는 물질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함께 하는 사람일 것이다.

창조과학은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하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잘못 된 과학 이론인 진화론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온 인류가 반성경적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은 성도들에게 진화론의 옷을 벗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고후 10:5) 돕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바른 과학지식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최우성



## 창조과학 탐사여행 | 강의 | 지역 소식

###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탐사여행

지난 7월 1~5일 닷새간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에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대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고 간증했습니다(간증란 참조). 탐사여행이 공부하는 차세대에게 효과적인 도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닷새 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며, 탐사여행 동안 다루었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긴 모습들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내년에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갖고자 하는 의견들이 진지하게 나왔던 것도 그 결과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 100번째 탐사여행

지난 8월 17~19일 탐사여행이 100번째 출발하는 여행이었습니다. LA에서 모집하였고, 첫 번째 탐사여행과 동일한 코스였던 점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첫 출발에는 한 교회였던 것과는 달리 참석자들은 LA주변뿐 아니라, 뉴저지, 애틀란타, 달라스, 본국 등 각지에서 모여 탐사여행이 그 동안 많이 보편화되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 창조과학선교회 새 로고



창조과학선교회의 새 로고를 소개합니다. 로고의 물결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 더욱 왕성하게 교회와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를 디자인 해 주셨고 현재 뉴스레터 디자인을 해 주시는 에젤디자인의 손진성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신학교 강의

2008년 가을학기에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교와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오픈 됩니다(강사: 최우성 서부지부장).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교(강의 장소: 나성영락교회)의 자연과학 개론은 지난 학기에 이어 매 주 화요일 저녁(8:15~10:50)에 진행 됩니다. 베데스다 대학교의 지구과학 강의는 매 주 목요일 저녁(8:30~11:00)에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들로 세워질 인재들에게 세속적인 관점의 반성경적인 지식에



서 벗어나 성경적인 관점의 참된 과학을 소개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현재 규모가 큰 남가주의 대부분의 한인 신학교들에 창조과학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 강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부 소식

### 화석공원 화석탐사 및 AIG 창조뮤지엄 관람여행

지난 7/4-5일 시카고 헬로십교회 25명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찾아 Ohio River 화석공원 화석탐사 및 AIG 창조뮤지엄 관람여행을 은혜 중에 다녀 왔습니다. 22~24명을 기본으로 시카고에서 출발하는 이 여행은 1박2일이며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847-845-5368로 문의바랍니다.

### 제 7기 중부지부 창조과학학교

시카고 지역의 창조과학학교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 주 월요일 시카고 헬로십교회(담임: 김형균목사)에서 열립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성황리에 마쳤던 제 6기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창조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이 전달되어 성경적인 세계관이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847-845-5368.

중부지부 화석탐사여행



브라이스 캐년 아래까지 내려가서(새한장로교회)





바벨탑?? 바벨탑!!! (4)

## “불쑥” 튀어나온 문명들

**인**류 역사의 초기 99%는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이고 글을 쓰게 된 역사시대는 불과 5000년 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배워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인류 역사는 정말로 이렇게 길고 긴 구석기 문명을 지나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화 순서로 발전했을까?

그러나 증거들은 고대 문명(civilization)이 천천히 진화되었거나 수만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역사 속에 드문드문 하나씩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문명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더욱이 그 초기 문명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기 때문에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의문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 고대 사람들은 피라미드나 지구라트(ziggurat)같은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는 비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발견된 그들의 흔적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섬세한 제조 기술을 가졌을 뿐 아니라 중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인도 서북부의 인더스문명에 이르는 상거래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갑작스런 문명 출현은 중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미 태평양 연안에 있는 페루의 카스마 분지(Casma Valley)에도 복잡한 문명이 발견되었다. 과학잡지 Scientific American의 1994년 6월호의 보고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이 언덕 위에 있는 30 m 높이의 신전을 발견하였는데 이 건축물은 이집트의 대 피라미드보다 불과 2~3백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복잡한 벽이 있는 도시들이 발견 되었는데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커다란 구조물들이 함께 발견 된다. 이 도시들은 황하 중하류 산둥성 제남(Ji-nan) 지역에 있는 용산문화 시대의 것들인데 기존에 알려진 최초의 중국왕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도 역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고고학적인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고대 문명들은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다. 문화와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고 단순한 마을에서 아주 복잡한 도시로 역사의 무대에 불쑥 등장한다. 문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명들이 발전하고 쇠락하는 속도는 가히 놀랍다. 고도로 발전된 섬세한 문화들은 과거 역사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음에 틀림 없다.

이런 문화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진화론적인 혹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문화로 발전해 오는 중 약 5000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언어가 만들어지고 글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역사시대의 막을 열게 되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년 동안 한 언어로, 글 없이 살았던 인류가 갑작스럽게, 불과 몇 백년 안에,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언어와 문명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다른 한 설명은 항상 있었고 신실한 분의 계시인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된 때부터 이미 말을 할 수 있었고, 최초 인류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으며, 아담의 2대손인 에녹 때에 가인은 성을 쌓았고, 아담의 7대손에 가서는 장막, 수금, 툽소, 동철로 만든 각종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문명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 뿐 아니라 이런 기술과 문명은 노아홍수와 바벨 사건을 지나면서 급격히 쇠락했겠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창조력은 세계 곳곳에 갑작스런 문명을 다시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바벨 사건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역사에 갑자기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강, 황하의 용산, 페루의 카사 등 고대 문명들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8월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어떤 문화도 바벨보다 앞서있지 않았으며 역사에 “불쑥” 튀어 나온 것 같은 고대 문명들은 바로 바벨 사건의 증거들이었다.(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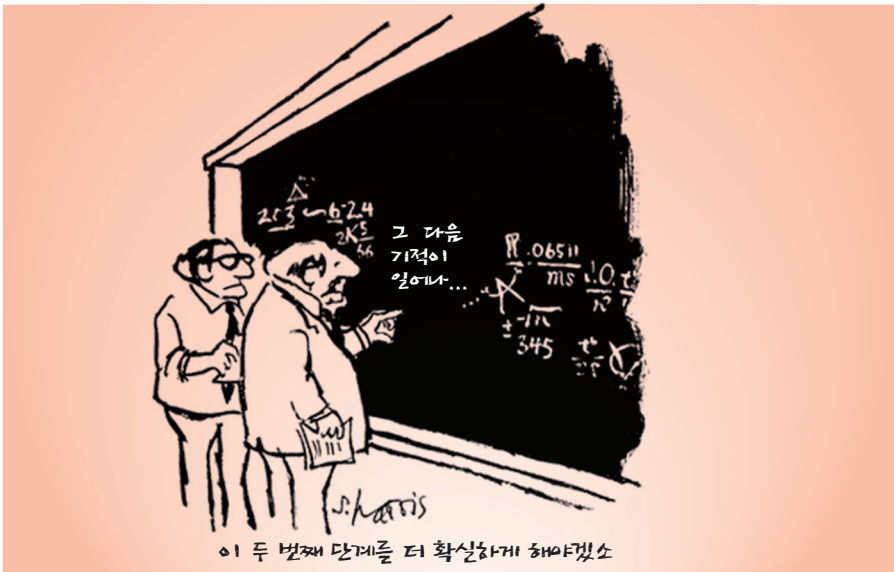
는 다용도의 능력을 가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다.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수행 가능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유전학과 유전학 원리들을 가르치는데 잘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설득력 있는 생물학적 변수들을 “멘델의 회계사”에 적용하면 그 결과들은 다음 사항들과 잘 어울린다: (1)최근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 (2)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특징들의 변화가 빠르게 현지에 적응되어 안정화 되는 것, (3)한 차례의 급격히 유전적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 (4)급격한 유전적 무질서는 점진적으로 사라지지만 유전적 쇠퇴는 계속 되는 현상, (5)수많은 멸종 사건들.

이 프로그램은 <http://mendelsaccount.sourceforge.net>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현실적인 변수들이 선택되면 “멘델의 회계사”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과정이 언제나 유전정보의 무질서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해로운 돌연변이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선택 과정으로 당장 발견 되어 제거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대를 이어가며 점점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여지없이 생물의 적응력을 약화 시킨다.

“멘델의 회계사”는 압도적인 실험적 증거들을 통해 진화론적인 유전학 이론들에 들어 있는 모든 “치명적인 오류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성적이고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증거들을 통하여 진화론적인 유전 이론이 효과적으로 부정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Larry Vardiman, Ph.D.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의 연구 책임자  
Source: ACTS & FACTS, July 2008.





## 아틀란타 새한장로교회 탐사여행 후기

이번 세미나(탐사여행)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에 힘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재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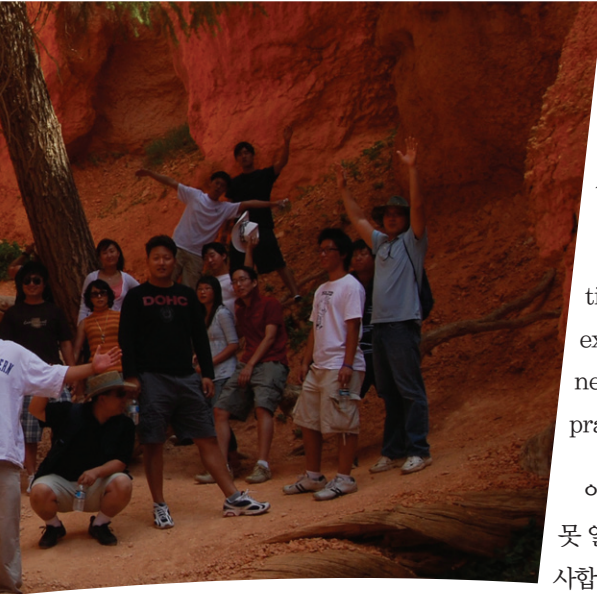
선교사님,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상과 영광 창조의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 국윤권 목사

Thank you so much for this amazing experience. It was truly an honor. I hope you will continue to spread God's word to the ends of the earth. - Alice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선교사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었어요. 앞으로 창조과학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게요. 5일 동안의 소중한 시간들 너무 감사해요!

ps,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 엄다솜

멋지신 선교사님, 1000불이라는 소중한 돈을 내고 왔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갑니다. 한가지라도 더 말씀하시려는 선교사님의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시지만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조금 두렵지만 저에게는 “답”이 있기에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선교사님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소리로, 표정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참슬 드림

Thanks so much for your effort and  
time. This was truly a life-changing  
experience. I'm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and you'll always be in my  
prayer. -김원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잘  
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게 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처음엔 천불이 너무 큰 돈으로 느껴지  
고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천불이 선

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증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 다음 여름에 있  
을 빙하시대 세미나도 참여해서 많이 배우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 드릴게요. - 전예송 드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어디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명  
확하지 못한 답 밖에 없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의문점들이 통쾌  
하게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 희성 올림

이젠 학교에 가서도 제 친구들에게 진화론의 틀린 점도 가르쳐 주면서 창조론에 대한 것을 가  
르쳐 주겠습니다. 책 잘 읽으며 더 많은 걸 배우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빙하시대 세미나에  
와서 물어 볼게요. 매일 기뻐하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 민제 올림

저희 새한장로교회와 또 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다시 생  
겼고 정말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학생이라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패러다임을 깨뜨  
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이재현 올림

너무 감사합니다. 4박 5일 동안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이제는 공부든 뭐든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패러다임을 깨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  
는 도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  
과학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고 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 무명



## 2008년 ACT Schedule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8/4-6 여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8/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호프 채플, 818-547-9191)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8/16-17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 중고등부 (세미나, 최우성, 334-954-9055), AL  
 8/19-22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25-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에브리데이교회, 818-832-6628)  
 8/26-12/9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 강의 (매주 화요일, 최우성) LA, CA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서/알바인/샌디에고 온누리교회)

9/2-12/11 베테스다 대학교 강의 (매주 목요일, 최우성), Anaheim, CA  
 9/5-7 주님의 영광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422-4939), CA  
 9/7 부전교회 (세미나, 이재만, 010-9086-8758), 본국  
 9/10, 17 연세대학교 (세미나, 이재만), 본국  
 9/11 본국 창조과학회 (세미나, 이재만, 02-419-6465), 본국  
 9/8-11/10 제7기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헬로침교회, 847-845-5368), IL  
 9/13 인랜드교회 청년부 수양회 (최우성, 909-802-5865), CA  
 9/17 두란노 본사 (세미나, 이재만), 본국 9/12-27  
 9/20 기독교 지질과학생 (세미나, 이재만, 02-419-6465), 본국  
 9/21 울산 주담교회 (세미나, 이재만), 본국  
 9/22-25 몽골 국제대학교 (세미나, 이재만), 몽골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3-3219), CA  
 10/13-16 빙하시대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11/5-9 창조과학학교 (시애틀 형제교회), WA  
 11/10-16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11/10 동양선교교회 (평생 학습원, 이재만), CA  
 11/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78)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12/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한빛교회, 858-733-1129)

##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과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